**마0816 Note**

**◆ 마귀의 역사과정, 우리의 권세**

◇마귀에게 잡히는 과정 - 케네스 해긴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여러가지 책에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편집해놓은 글입니다, 때문에 글의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마귀의 접근

2.마귀에게 억눌림(억압) : oppression;

1)몸밖에서 억눌림

2)몸안에서 억눌림

3)혼안에서 억눌림

귀신·망상·공포 관념 따위가 늘 붙어있음; obsession,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관념, 강박관념, 망상.

3. obsession ; 늘 붙어있음 (귀신·망상·공포 관념 따위가) ┅을 사로잡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관념, 강박관념, 망상.

4. possession ; 완전히 사로잡힘(점령당함, 점유됨, 주인으로 군림),

소유됨<to be possessed><몸안에서 마음이 억눌림>;

영,혼,육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

◆출입문

◇ 죄는 마귀에게 당신을 열어주는 주 출입구입니다

◇ 불순종은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 만일 당신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 당신 자신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사단은 들어올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값이 든다는 말을 합니다.

전력을 다하는데 값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비난과 슬픔의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의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돈으로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때로는 일찍 죽게 되는 대가를 치루기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처리하십시오.

치유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기꺼이 그 일을 하십시오

◇틈을 주지 말라

엡0427. 또한 마왕(디아볼로스: 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에게 자리(토포스:지점,장소,조건,기회,연안,허가,평원,지역,바위,방,어디)를 내주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거듭나지 못하여 마귀가 침범가능한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게 하라,

혼과 육을 우리의 영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억눌림 oppression;

◇억눌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롬0616.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청종하도록 종들로 내어주는 자에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청종의 종으로 '법적 깨끗함'에 이르든지, 너희가 청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그의 종들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영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부분적으로 성령님께 내어 드릴 수 있듯이,

악한 영에게도 부분적으로 내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악한 영에게 내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더 많이 내어 줄 수록 그 악한 영은 더 많이 당신을 주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해도

그들은 자유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부분은 성령께 내드릴 수가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은 사탄에게 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의 영안에는 마귀가 들어 올 수 없지만,

우리의 몸과 혼은 우리의 선택으로 마귀에게 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임시집과 혼을 다스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위 버디 해리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 열심으로 일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과 벗되어 살기도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정신분열환자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버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 했습니다.

"버디를 따라 다니는 세개의 귀신이 있다"

나는 곧 작은 영적 환상을 보았는데, 세개의 원숭이 같은 영이, 개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또 다른 하나는 중앙에서 버디를 따라 다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영이 버디를 따라다닌다. 버디가 오른쪽으로 향하면 한동안은 오른쪽에 있는 영에게 자신을 내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켜 얼마동안은 바르게 행동한다. 그러다가 또 그가 왼쪽에 있는 영에게 얼마동안 자신을 내주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같이 행동하며 잘 지내다가 그는 뒤에 있는 영에게 또 얼마동안 자신을 내주고 사는 것이다"

"어떤 때는 버디는 이 세 영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고 살았지만, 또 다른 때는 성령님께 자신을 드려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격이 분열된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버디는 어떤 영에게 순종하는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을 따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억눌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들이 허락만 하면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서자 말자, 마귀에게 자신을 내주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본 베드로는 곧바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주어 사용되었습니다.

Ω마1623.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내게 죄의 원인(스칸달론:덫,올가미,죄의 원인,함정,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하는 것,거침거리,불만)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들을 맛을 냄이라.

◇억눌림의 모양

좋지 않은 <기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많은 믿는 자에게 오는 억눌림의 한 형태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영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대하여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딤후0107.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데일리아:겁(怯), 두려움]의 영(靈)을 주시지 않고, 대신에 권능(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의 영(靈), 사랑의 영(靈), 그리고 건전한 정신(솝흐로니스모스:훈련,자제,근신하는 마음)의 영(靈)을 주셨음이라.

위의 말씀에서 성령님은 두려움을 영(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눌림의 예

1.육체적 억눌림의 예

"주님은 당신이 한번도 십일조를 낸 적이 없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의 양심도 상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주님과 해결할 때까지는 당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해 줄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불순종을 통해 마귀에게 문을 열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에게 안수하였고,

그의 몸을 억압하여 궤양을 만들어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 내었습니다.

2.정신적 억눌림의 예 ; 이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예민하여 잠을 잘 못잔다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어깨에 원숭이 같은 작은 영이 앉아 그 팔로 이 사람의 머리를 꽉 감고 있었습니다.

◆사례1;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신간 "승리하는 교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구름에 싸여서

1952년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났을 때, 주님은 나에게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주제로 상당히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1952년 환상은 세 부분으로써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귀신이 사람에게 자리를 잡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1952년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목사관에 거하고 있었고, 집회 후에 그 목사와 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 후에 그 목사와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달에 처음 착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만큼

그날 저녁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주 보통 때와 다름 없이 평범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 하려는 순간, 마치 하얀 구름이 내려와 나를 둘러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의 구름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고, 나의 육신의 오감은 정지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내 앞에 있던 난로, 탁자, 혹은 부엌에 있던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출 40:34-35; 왕상 8:10-11; 왕하 5:13-14 을 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천정이 있던 곳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이 거기 서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광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한 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오늘 밤 이후로 네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네게 역사할 것이다. "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귀신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주관하고 점령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인들도 만일 그들이 허락한다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로 잡아서 주관하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게 오랫동안 영분별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 하신 것 중의 하나는

영분별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광의 구름에 싸여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영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에 보이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인은 나의 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름답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목사이던 그의 남편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전 남편은 목사관 부엌에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바로 그 목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난 일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떠난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대개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접근

"이 여인은 나의 종이었다. 그의 남편은 목사였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였었다. 그러다가 마귀가 그 여자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 이것은 거의 작은 원숭이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와서 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이지요.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그 여자의 노래하는 능력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가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지만

 "세상에서 당신은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Ω빌0408. 끝으로 형제들아, 참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직한(쎔노스:존경,공경할 만한, 장중한,정직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적법한(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순수한(불순물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프로스필레스:친절한,기쁘게 하는,사랑스러운,정다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좋은 소식에 속하는(유페모스:칭찬하는,칭찬할 만한,좋은소식의) 무엇이든지, 만일 어떤 미덕(아레테:남자다움,용맹,탁월함,칭찬,미덕,도덕적 선양)이 있으면, 또 만일 어떤 칭송(에파이노스:칭송,찬양,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라.

귀신이 한 말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좋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덕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표준입니다.

◇마귀에게 권세를 사용하여 물리침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단아 내 뒤로 가라.'"

그리고 나는 그 작은 귀신이 뛰어내려 그 여자를 떠나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동안

"여러번 반복하여 이 귀신은 그 여자에게 돌아왔고, 그녀의 어깨에 앉아,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영은 그 여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 여자의 정신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 속에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직도 그것 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 4:4)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약 4:7).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생각 속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엡 4:27).

엡0427. 또한 마왕(디아볼로스: 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에게 자리(토포스:지점,장소,조건,기회,연안,허가,평원,지역,바위,방,어디)를 내주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번 반복하여 귀신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맞은 것이지요.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이 마귀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러면 귀신은 그 여자를 잠시동안 떠나곤 했다. "

그 여자가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돌아와서 그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을 한 번 대적했다고 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가 잠깐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눅 4:1-13).

Ω눅0413. 그리고 마왕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그가 그분으로부터 잠시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마귀가 다시 이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돌아와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동안, 나는 그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다시 그 악한 영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다면 당신은 명성, 부귀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몸밖에서의 억눌림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마귀에 의하여 억압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들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단의 암시와 억압에 면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암시에 자신을 양보하여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억압에도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힘과 정신이 억눌림 ; 사단의 생각을 생각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시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사단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는 내 인생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그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2603. 그 정신(생각)이 당신 위에서 머물고 있는 그를 당신께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니, 이는 그가 당신 안에서 신뢰함이라.

그러나 그 여자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사단의 생각에 거하며 그 생각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의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 여자가 자만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1618. 교만(가온:오만,탁월,영광,화려,교만,부풀음)은 파멸 앞으로 나아가며 또 오만한(고바흐:의기양양,위엄,오만,탁월,거만,높음,높은,고상함,교만) 영(靈)은 넘어짐(킷솨론:비틀거림,파멸,넘어짐)의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암시 : 사단의 도구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단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는지 의아해 합니다.

사단이 첫 번째로 역사하려는 곳은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놀랍고 능력 있는 무기는 암시라는 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사용한 무기입니다(창 3:1-7).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와는 기만 당하였고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창 3:13).

오늘 날 사단의 주된 전략은 아직도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암시로 사람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암시에 먹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안의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마귀가 당신의 생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당신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혹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대적하고 꾸짖으십시요

구한 것을 받았다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생각, 이미지, 꿈, 환상, 암시, 인상, 느낌을 지우십시요.

마귀는 암시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요.

그리고 분별하십시요

때로는 교회로부터도 멀리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앙을 너무 많이 심어주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사단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암시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여자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여자는 변화되어 마치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50전짜리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점은 그녀가 악령이 준 생각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내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 나의 종은 그냥 밖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는 그 악한 영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딸로서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몇 번이나 대적을 하였다.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나가곤 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악한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암시를 듣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내 딸이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만일 그 여자가 그런 생각들을 그 마음에서 버리려고 했다면 그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대적한다. 마귀야,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런 생각을 하였고 드디어 그 여자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믿는 자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어느 때라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때라도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단아 내가 명령하노니 나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떠나라.'

그렇게 했다면 사단은 그 여자에게 순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명성 부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하였다.

그 남자로부터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점령당함

얼마 있다가 그것이 그녀의 영(靈) 안으로 들어갔다

환상 가운데 나는 그 검은 점이 머리에서 심령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를 다섯 명이나 거쳤으나 그 중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들과 같이 살았을 뿐이다 "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 여자는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 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

예수님께서 잘못된 일을 승인하거나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죄에서 돌아서면 잘못된 일을 용서해주십니다(요일 1:9).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 불결(不潔)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내 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마귀들 위에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여야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특정한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가 호텔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나는 호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호텔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와 함께 호텔 내부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내 창구로 가서 그 호텔에 아무개 부부가 등록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들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부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단의 목사가 그들의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영(靈)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 목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기 위하여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목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 목사는 그 여자를 회복시키고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목사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치게 유혹을 받았거나 큰 유혹 중에, 혹은 화가 나서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그 여자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있던 50전 짜리 동전 크기 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그 마귀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마귀는 그 여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억눌림(억압), 사로잡힘, 완전히 점령당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한 이십 년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유아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억압을 받았고 사로잡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 그 여자는 그 귀신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허락을 통해서만 그 여자는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당시 그 여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 여자가 마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그 여자는 그것을 원한단다. 아무도, 너도, 교회 장로들도, 다른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아무도 인간의 영(靈)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靈)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靈)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영(靈)에는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는다.”

"나는 악한 영과 귀신들에게는 나의 권세를 행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 자들도 악한 영과 귀신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그런 상태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여자가 마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악한 영을 그녀에게서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

“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계 22:17; 수 24:15).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시지 않는다. "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만일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몸이나 마음에서 그런 영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마귀를 다루고 꾸짖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는 그 여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을 선택하였고 그 여자는 마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롬 6:16).

롬0616.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청종하도록 종들로 내어주는 자에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청종의 종으로 '법적 깨끗함'에 이르든지, 너희가 청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그의 종들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단의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생각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도록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보다 성령을 더 많이 원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례2 : 케네스 해긴

한 영이 그 남자의 어깨에 와 앉아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탄이 그에게 준 생각을 즐겼습니다.

그러자 그 영이 그 남자의 정신(mind)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그들 세계에서 높은 지위의 영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사람을 사로 잡아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귀신들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영들은 그들과 함께 다른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 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의 미친사람에 대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Ω막0506.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져 예수를 보고, 그가 달려와 그분에게 경배하니라.

막0507.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쳐, 여쭈니라, 예수, 당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걸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은 나를 고문하지(바싸니조: 고문하다,고통을 주다,종을 치다,던져 올리다, 성가시게 굴다) 마소서.

막0508.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를 이르셨음이라(미완료 시제) 곧, 너 더러운 영(靈)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겨우 악한 영 하나가 들어 갔는데도 2천이나 되는 군대가 쫒겨났습니다.

환상가운데, 그 영이 그 사람을 붙잡아 뚜껑문처럼 그의 머리를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영들이 와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알아 보았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네가 누구든 귀신들린 사람 앞에 가게 되면 그가 너를 알아 볼 것이다"

행1915. 이에 악령이 대꾸하여 말하니라, 예수를 내가 알고, 또 바울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나 너는 누구냐?

행1916. 그리고 그 안에 악령이 있던 그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 올라, 그들을 물리치며, 그들을 능가하니, 그들이 벗겨지고 부상당한 채 그 집에서 달아나니라.

환상 가운데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 갔는데, 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난 널 알아"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조용해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를 통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영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거라사 사람과 같은 경우에 내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라. 나는 그것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분별했고, 나는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다"

환상에서 귀신들렸던 그 사람의 경우, 나는 즉각 어떤 종류의 영이 그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았고, 그 영에게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영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도 알아야 할 때가 있다. 거라사 사람의 경우에 내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했지만, 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 관해 또 다른 점에 관해서도 나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었습니다.

"만일 네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너는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통해 말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물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간 처음의 영(靈)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의 음성을 사용했다. 그럼 12절을 보아라."

막0512. 이에 모든 악령들이 그분께 간구하니라, 여쭈되, 우리를 돼지들 속으로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갈 것이니이다.

“모든 귀신들이 한꺼번에 소리쳤다. 네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영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없이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은사는 내 사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귀신들이 내게 간청했다. 그들 모두 한꺼번에 말을 했다. 그들이 입 밖으로 들리게 말한 것은 아니었는데 즉, 사람이 말하는대로 말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환상 가운데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들려있는 영이 어떤 종류인지 분별하고,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수를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 말고 열아홉이 더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열아홉의 다른 녀석들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아래의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Ω마1243.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는 쉼을 찾아 마른 곳들을 통해 걸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지옥으로 내쫓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다면, 내가 그들을 지옥으로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마귀가 내게

Ω마0829. 그런데 보라, 그들이 울부짖으며 말하되,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께서 이곳에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던 경우를 기억할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그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오면 사탄과 그의 모든 마귀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동안, 원숭이 처럼 생긴 악령 하나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뛰어 지나가더니, 검은 구름같기도 하고 연막같기도 한 뭔가를 퍼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자기 팔과 다리를 흔들며 위 아래로 뛰어 오면서 날카로운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야게티 약, 야게티 약, 야게티 약"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르시나?

예수님은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나는 그걸 들어야 해.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지금 놓치고 있어.

나는 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에게 그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악한 영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듯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지 않으시는지 계속 의아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나에게, 세상에 일어 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

마침내 내가 자포자기하여 내 손가락으로 그 악한 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잠잠할 지어다"

그는 즉시 멈추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검은 연막이 사라지고 나는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는지 여전히 의아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뭔가 하지 않았다면, 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거죠?"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단다" 예수님은 쓰러진 악귀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영에게 네가 뭔가 하지 않았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저것에 대하여 네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단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것"은 비단 저 귀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가로막아 보이지 않게 하던 검은 구름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교통하는 통신, 즉 기도나 다른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것, 문제들, 불리한 환경들 그외 많은 것들이 이 검은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게 보내셨을까?'

그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그 영은 바닥에 누워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를 냈는데 마치 매맞은 강아지 같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단지 조용히 있을 뿐 아니라 일어나 여기서 나가라" 그는 일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설교나, 제가 해온 설교들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저의 신학을 뒤엎는 것입니다."

"때때로 너의 신학은 뒤엎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는 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세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후13;1)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화내는 대신 부드럽게 미소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명의 증인뿐만 아니라, 네명의 증인을 주겠다"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신약을 150번 이상 통독했고, 부분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면 제가 모르겠습니까?"

"얘야, 성경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다"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하면 내가 뭔가 행할 것이라고 말한 곳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단다. 마귀를 꾸짖어 달라거나, 뭔가 마귀에 대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된 곳은 교회에 쓴 어떤 서신서 어떤 장면에도 없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쇠사슬로 마귀를 묶어 무저갱에 가둘 때까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미 모두 하셨다. 신약의 기자들 모두 교회를 위해 기록하면서, 마귀에게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신자들이라고 기록했다. 신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는 자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마귀에게 뭔가 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성경은 믿는 자들 스스로가 마귀에 대해 무엇인가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Ω약0407.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왕을 격퇴시키라(저항, 대항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달아날 것이니라.

◇<증거1.>

Ω마2818. 이에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르시되, 모든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영향력)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내게 주어졌느니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 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그러나 나는 즉시 나의 땅 위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여 넘겨 주었다

◇<증거2.>

Ω막1615.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낱낱의 족속(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선포)하라

막1616. 믿고,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는 그는 구원되느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그는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카타크리마:불리한 판단을 하다,선고하다,정죄하다,저주하다).

막1617. 그리고 이들 표적들이 믿는 그들을 따르느니라, 내 이름의 권위로 그들이 악령들을 쫓아내며, 그들이 새로운 발성들로 말하느니라,

신약기자의 누구도 단 한번도 너희에게, 하나님이나 나에게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너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처음 표적중의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말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나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넘겨 주었고, 나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 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증거3.>

Ω약0407.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왕을 격퇴시키라(저항, 대항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달아날 것이니라.

“야고보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타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Ω벧전0508. 술취하지 말고 분별있게(네포: 금주하다,술취하지 않다, 분별있다) 있으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방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왕(디아볼로스: 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그가 삼켜버릴 자를 찾아 여기저기 걸어 돌아다님이라.

벧전0509. 동일한 괴로움들이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서, 믿음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그에게 저항(대항)하라.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두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매 맞았어요’라고 하려느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9절의 말씀을 보라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없으면서 그를 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그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너는 그를 대적할 수가 있다."

◇<증거4>

엡0427. 또한 마왕(디아볼로스: 비방자,특히 사탄,거짓 비방자,악마,마귀,중상자)에게 자리(토포스:지점,장소,조건,기회,연안,허가,평원,지역,바위,방,어디)를 내주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마귀가 네게 들어오도록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네 안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말이다. 네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네게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마귀는 네 안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러면 네가 그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야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닐 것이다, 즉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4명의 증언은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내가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너희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마귀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경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다"

실제로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